

#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의 학문이 나왔다

왜 '나'를 항상 버리라고 했는가?  
자존심만 건드리면 성질이 파르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악인 것이다. 자존심만 건드리면 악이 나오는 이유는 '나'라는 의식 자체가 악령인 까닭이다. '나'라는 의식 자체가 악령인 까닭에 '나'를 건드리면 악이 나오는 것이다.

### 성경과 불경에는 왜 나를 버리라고 했을까

'나'라는 주체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들으니'가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왜 '나를 항상 버리라고' 써서 있었을까? '나'라는 것은 필요없는 존재,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버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나'라는 것이 천당 가는 줄 알고, '내가 믿지만 하면 천당 간다'고 덮어놓고 자기를 믿고 돈을 맡기려면 여러분은 맡기겠습니까? 하물며 생명에 관한 것을 어떻게 덮어놓고 믿을 수가 있던 말입니까! 너무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라는 것이 마귀요, 죄요, 선악과라고 뚜렷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항상 버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불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불교에서도 이것을 모르고 있고, 유교에서도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내가 도통(道通)을 하고 '내가 극락세계에 가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말씀인고로 선악과는 영적 과일로써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다고 했으니 죽음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마음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주체영이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것이 성경에는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는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 속에는 아담과 해와의 주체영이 하나님이었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며, 아담과 해와가 이 세상 만물을 볼 때 보기에 섰다고 했으니 선한 선한 세계에서 살고 있던 아담과 해와는 선한 것은 알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만을 알고 있던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는 선악과로 선과 악을 동시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악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란 악을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악한 마음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악한 영이므로 선악과가 바로 마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러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마귀에게 점령당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점령하는 순간 나의 주체 의식이었던 하나님의 영이 마귀 육에 갇혀 버리고 마귀가 '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메시아(彌沙, Messiah) 조희성님

'내가 바로 죄인요, 마귀이기 때문에 자존심(自尊心)만 건드리면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존심만 건드리면 성질이 파르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자존심만 건드리면 악이 나오는 이유는 자존심이 악령인 까닭입니다. 자존심이 악령이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마귀요, 악령인고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회생정신으로만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지면 돌을 갖고 싶어하고 더욱 많이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이기 때문에 욕심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고로사 1:15)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욕심이 죄요, 죄가 사망이란 말입니다. 욕심으로 인해 죽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 자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을 부리고 욕심이 죄라면 '내가 죄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버리라고 했고, 나아가서 '내가 행하는 것은 전부 죄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

예수는 도둑질이나 못된 행동하는 것만이 죄라고 가르쳐 왔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내가 행하는 것은 다 죄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다 죄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를 해도 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내가 행하면 모

인간은 원래 너와 내가 없는 하나의 존재, 하나님이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이 우주를 하늘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두 죄가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나 석가, 공자, 맹자는 물론 각 종교의 성인이라고 자처하는 그 어느 누구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는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기타 모든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베소서 2:8)"이라 했는데, 생명의 신이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영생을 누리려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죽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려면 영생의 원수인 사망을 이겨야 합니다. 사망권을 잡은 것이 마귀인고로 마귀를 이겨야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다 죽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물자각한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불교에서도 부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사람이 없어 진정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 한 사람도 영생을 주지 못하면서 사망권을 이겼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그것이 곧 하늘나라

그러므로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망을 이겨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고로 영생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날날 모든 종교는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마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사망을 이기는 이기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간자」가 나오기 전에는 이 세상에 믿음이 존재해 본 역사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라는 주체의식은 마귀였던고로 이 세상 학문이나 종교는 모두 마귀 속의 학문이고,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자신있게 외치는, "이 세상에 종교와 학문이 없었다"는 말이 정확한 말인 것입니다. 마귀의 학문, 마귀의 종교는 있었을지언정 하나님의 학문, 하나님의 종교는 없었던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죽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가 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참 종교요, 참 학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루빨리 세계만방에 알려서 천지개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너와 내가 없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이었으므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이 되어 이 우주를 하늘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어서 천당간다"는 식의 말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 《9장 사사시대》

## 4절: 단지파의 제사장, 모세의 손자 요나단



사사기 18장에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모세의 후손이 대대손손 단지파와 함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세주)>가 단지파 자손에서 출현할 것이라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마귀 입장에서 볼 때, 두렵고 신경을 곤두세운 만한 일이었다. 반면에 하나님 입장에서 이러한 마귀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기만작전(欺騙作戰)으로 대응하였다.

### 요나단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마귀 신이 들린 사람들은 성경을 보아도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보기에 하나님의 숨은 경륜을 전혀 알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가문 가운데 유다지파의 사람인 다윗 왕과 솔로몬 그리고 예수를 세워 마귀의 시선을 유다지파 쪽으로 따돌리고 단지파는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으로 마귀로 하여금 오만하게 유도하였다.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세히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은신상과 드라빔 같은 우상을 숭배하였다고 했지,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나 단지파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말은 없다. 다만 유다지파의 기업에 속한 땅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온 요나단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한 것은, 그가 레위인으로서 제사장 신분으로 합당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요나단이 미가의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은신상을 숭배하였다면 하나님은 평소 요나단의 기도를 들어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마귀 신을 받은 일부 목회자들은 단지파에서 구세주가 출현한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들의 철밥통이 끊어질 수 있기에, 단지파와 제사장 요나단을 우상숭배로 타락한 집단이라고 설교의 주제로 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 집안의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한 목적은, 미가가 제사장 요나단을 강제로 납치했다고 역시 부릴 것(사 18:24)을 대비하여 우상숭배의 은신

상을 증거물로 압류한 것이니, 이 모든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시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단지파 진영에서는 십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김이 집안의 가족을 전부 멸절시켜야 된다고 격노하는 자가 있었다.(사18:25)

분명히 제사장 요나단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성경 사사기 1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단지파의 정탐꾼 다섯 사람이 제사장 요나단을 만나 "우리 단지파 백성들이 살 곳을 찾는 중인데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험통한지 하나님께 물어보시오!"라고 부탁했을 때, 요나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응답을 듣고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고 그대로 알려주는 장면이 나온다. 이렇게 제사장 요나단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우상숭배와 거리가 먼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미가 집안의 제사장으로 들어갈 때, 그가 아직 청년이

었다는 점도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의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던 시절(삿2:10-13)이 도래하기 전이었다.

요나단의 할아버지 모세는 나이 40세에 애굽을 탈출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피생활을 할 때,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심보라와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게 되자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고 신세를 한탄하며 그 아이들의 이름을 나그네 또는 종이라는 게르숨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10년 내지 20년 동안 하다가 어느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일꾼 딸과 인연되어 그 제사장의 집안에서 살게 되었지만 아마도 양치기로서의 종살이를 10년 가까이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모세의 성실함에 감동한 제사장 이드로가 기꺼이 그의 딸 심보라를 주어 사위로 삼았으리라. 모세와 심보라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게르숨인데, 그 게르숨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10여 년 전에 시나이 광야에서 요나단을 낳았음에 분명하다.\* 안젤라

